

‘충격의 6연패’ 광주FC, 제주서 최하위 탈출한다

오늘 K리그 10라운드

강등 위기... 중위권 반등 절실
안영규·엄지성 등 전력 정상화
추가 시간 갖은 실점 극복해야



개막 2연승 후 6연패 충격을 입으며 최하위까지 추락한 광주FC가 제주도를 '기회의 땅'으로 삼아 반등을 노린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5월에는 차근 차근 순위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1일 오후 7시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4월을 최하위로 마무리한 가운데 5월 첫 경기에 돌입하는 이정효호다.

광주는 최근 6연패 늪에 빠지며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경신하는 불명예를 썼다. 2017시즌과 2020시즌, 2021시즌(물수페 포함) 기록했던 5연패를 이미 넘어섰다.

경기력이나뿐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패라 더 뼈아프다. 광주는 높은 점유율과 단계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치렀지만 아쉬운 마무리와 함께 상대의 역습에 약점을 노출했다.

특히 6연패가 모두 한 점 차 패배로만



광주FC가 1일 오후 7시 제주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27일 수원FC와 9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뤄졌고, 이 중 네 경기는 후반 추가시간 들어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 막바지 체력적인 한계에서 상대의 뒷공간 공략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이 광주는 최하위인 12위까지 추락했다. 12위는 K리그2로 강등되고 11위와 10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잔류에 도전해야 하는 만큼 5월에는 반드시 순

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연패 기간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광주FC U-12부터 U-15(광덕중), U-18(금호고)을 거쳐 프로에 입성한 첫 사례인 '성골 유스' 문민서가 지난 라운드 수원FC를 상대로 저돌적인 돌파에 집착한 마무리까지 선보이며 쾌조의 공격 감

각을 자랑했다.

한 달여 이정효 감독의 조련을 거친 최전방 공격수 허용의 중앙 수비수 변신도 성공적이었고, 측면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한길과 정지용의 발끝 역시 날카롭다.

제주 원정에 최정에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주장 안영규가 퇴장

으로 인한 2경기 출장 정지에서 복귀하고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아컵에 소집됐던 엄지성과 변준수도 돌아왔다.

광주는 제주와 통산 전적 6승 6무 7패,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5무 3패로 근소한 열세에 있다. 하지만 서귀포 원정에서 3승 4무 3패로 팽팽했고, 지난해 세 차례 맞대결 역시 1승 1무 1패로 백승세를 이뤘다. 이번 원정은 통산 전적에서 동률을 이룰 기회다.

제주는 최근 3연패에 빠져 8위까지 떨어졌다. 전문 공격수가 없어 라인업 구성이 고민된다는 김학범 감독의 한탄 속에 연패 기간 2득점 7실점에 그치며 득실 마진이 -5에 달했다.

하지만 김학범 감독의 지략은 언제든 빛날 수 있다. 특히 유리 조나탄과 탈레스 호세 다 실바, 이스나이루 헤이스, 이탈로 바르셀루스로 구성된 브라질 4인방의 호흡이 위협적이다.

광주는 위기 속에 서귀포를 기회의 땅으로 삼는다.

광주는 지난 2월 서귀포에서 2차 전지 훈련을 하며 올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임했고, 이정효 감독은 남기일 감독 아래에서 제주 수석코치를 역임해 익숙한 장소인 만큼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오월은 푸르구나, 가린이는 챔피언로 모여라!”

KIA, 주말 어린이날 이벤트



KIA타이거즈가 오는 3~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와 주말 3연전을 어린이날을 맞아 '가린이 날 시리즈'로 개최한다.

특별 유니폼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까지 마련됐다.

KIA는 가린이 날 시리즈에 어린이 팬들을 시구자로 초청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증정해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수단은 이번 가린이 날 시리즈에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3일 경기 승리 기원 시구는 올해 1호 키즈클럽 가입자인 장하령 어린이가 맞으며 4일에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102번째 키즈클럽 가입자인 정하준 어린이가 마운드에 오른다.

5일은 가린이 출신인 그룹 CRAVITY(크래비티)의 리드보컬 민희와 메인보컬 우빈이 시구와 시타에 나서고, 경기에 앞

서서는 서브보컬 성민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또 5회말이 종료된 후 클리닝 타임에는 CRAVITY의 특별 공연도 열린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3일과 4일에는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챔피언스필드 투어를 진행한다. 투어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챔피언스필드 시설을 둘러본 뒤 선수단 훈련을 참관한다.

4일에는 응원단에게 치어리딩을 배우고 단상에서 직접 공연을 펼치는 어린이 치어리딩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호통이와 티셔츠가 지급되며 1회말 시작 전 라인업송에 맞춰 공연을 펼친다. 5일 경기 후에는 어린이들에게 그라운드가 개방돼 캐치볼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된다. 4일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제작한 키링과 물티슈 2000개, 5일에는 해태제과 홈런볼 40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또 시리즈 기간 하랑이가 들어간 특별 티켓 5종이 무작위로 발급된다.

한규빈 기자

전남 유도, 전국실업선수권서 선전

순천시청과 여수시청 선수단이 2024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전남 유도의 선전을 이끌었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지난달 26~28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박다솔과 김지정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다솔은 여자 일반부 -57kg급 결승에서 김재령(경남도청)을 상대로 안다리로 절반을 따내며 정상에 올랐다.

김지정은 여자 일반부 -70kg급 결승에서 한희주(필룩스)에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수시청 유도팀은 김성훈이 은메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레프트백 김지현(왼쪽 두번째)이 지난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시상식에서 베스트 7을 수상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도시공사 김지현, 핸드볼 H리그 베스트 7

팀은 페어플레이상 수상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레프트백 김지현(사진)이 올 시즌 H리그 여자부 베스트 7을 수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페어플레이상을 거머쥐며 올 시즌 7위에 그친 아쉬움을 털었다.

김지현은 지난달 29일 한국핸드볼연맹(KOHA)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한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시상식에서 베스트 7을 수상했다.

김지현은 올 시즌 21경기에 모두 나서 득점 3위(143득점)에 올라 센터백 강경민(SK슈가글라이더즈)의 이적 공백을 메웠다. 특히 9m 득점(프리드로 라인 부근 및 프리드로 라인보다 먼 위치에서 시도한 슛)이 73차례로 1위였다.

김지현과 함께 베스트 7에는 골키퍼 박새영과 라이트윙 김선화(이상 삼척시청), 센터백 강경민, 라이트백 유소정, 피봇 강은혜(이상 SK슈가글라이더즈), 레프트윙 윤예진(서울시청)이 선정됐다. 또 광주도시공사는 페어플레이상을 수

상하며 체면을 세웠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6승 1무 14패(승점 13)로 7위에 머무르며 플레이오프 연속 진출 기록이 세 시즌에서 중단됐다.

한편 2023-2024 H리그는 SK슈가글라이더즈의 통합우승으로 마무리됐다. 정규리그 1위 SK슈가글라이더즈는 2위 삼척시청을 상대로 챔피언결정전 2연승을 달렸다.

챔피언결정전 MVP에는 센터백 강경민이 선정됐다.

한규빈 기자